

교회 목표

1. 천국일꾼을 키우자
 2. 우리 세대에 민족 복음화를 이룩하자
 3.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자
-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18:1)

주간 충현

발행인: 신성중
편집인: 윤명식
편집국장: 손경수
발행처: 대한예수교장로회
충현교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FAX: 552-2925
사서함: 영등우체국 1896호

1992년도 목회 지침 표어: 민족을 위한 제사장 교회가 되자 주제성구: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눅14:23)

공동의회서 장로 5명 피택

김여순 · 강 협 · 임봉남 · 이하영 · 이관섭 집사



〈김여순〉



〈강 협〉



〈임봉남〉



〈이하영〉



〈이관섭〉

지난 주일(16일) 4부 예배 후 실시된 공동의회에서 제26대 장로를 투표한 결과 5명이 피택되었다.

공동의회 참석자(세례교인) 중 투표에 임한 사람은 3,025명이었으며, 유효표 3,010표, 무효표 15표(20명 이상 기재자), 그리고 당선 득표수는 2,017표였다.

이에 따라 개표한 결과 5명이

피택되었다. 이들은 앞으로 당회가 마련한 6개월 코스의 소정의 교육을 마친 뒤, 수도노회 고시부가 주관하는 장로 고시에 응시하여 합격되면, 교회 절차에 따라 오는 10월경 장로 장립을 받게 된다.

5명의 피택 장로 명단은 다음과 같다.

▲김여순(60세, 제17교구 3지

역장, 장년4부 부감, 예배위원, 특수전도회장)

▲강 협(66세, 제17교구 4지역장, 전도위원, 협동장로)

▲임봉남(67세, 제5교구, 안수집사회 회장, 재정위원회 회계)

▲이하영(60세, 제4교구, 장년2부 부감, 안수집사회 부회장)

▲이관섭(56세, 제8교구, 찬양감독, 아멘찬양대 지휘자)

카메라 초점



▲2월 16일 장로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 현황을 비디오카메라로 찍은 것이다.



▲2월 18일 피택 안수집사·권사 교육 중강예배가 있었다.

교회학교 겨울 수양회 일정

부서	일자	주제	장소	강사
영아부	2.24.25	예이 있이라	아멘홀	이건숙, 장연희
유치부	2.24~26	예수님 언제 오세요	교201, 205 베다니홀	김정자
초등1부	2.24~26	예수님 사랑해요	교212	김필수
초등2부	2.24~26	예수님을 즐거워하는 믿음 생활	교314	정갑진
초등3부	2.24~26	구원받은 생활	교307	윤삼중
초등4부	2.24~26	예수님은 나의 좋은 친구	교407, 514	장상기
초등5부	2.24~26	화평을 전하는 삶	교414	정창욱
초등6부	2.24~26	지혜를 얻은 자	교507	장경철
청년부	3.9.10	예수를 믿는 청년이 되자	충현 기도원	김해규, 김정우 김관근
사랑부	2.25	예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 되자	교107	이홍성

농아학교에 복음 심는
에바다부 학생반

에바다부(부장 조인제 장로, 지도 김성운 목사, 부지도 이준우 전도사) 학생반은 지난 2월 8일부터 매주 토요일 회원들이 다니는 삼성농아학교, 서울선화학교, 서울에화학교를 방문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다.

전체 농아자들의 복음화를 위해서는 먼저 이웃에 있는 농아자들부터 복음화시켜야 한다는 인식 아래 2월 첫째주 토요일부터

에바다부 교사들과 학생들은 학교 시간에 맞추어 농아학교를 방문하고 학생들에게 에바다부 주보를 전달하고 있다. 앞으로 이들은 학생들과 함께 대화하는 시간도 갖고, 전화번호와 주소를 알아내어 주일에는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차량을 제공하여 복음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복음 전파에 실효를 거둘 계획이다.

에바다부의 이러한 전도 운동

임시당회
피택장로 의결

16일 저녁 찬양예배 후 가진 임시당회에서, 공동의회서 피택된 5명의 피택장로를 의결했다. 의결된 5명의 피택장로는 23일 주일 예배시 당회장이 공포한다.

이 육신의 장에로 말미암아 영적 불구에 놓여 있는 많은 농아자들에게 복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의 귀를 열게 하는 귀한 활동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충현프리즘

④... 지난 주간 장로 투표가 은혜롭게 진행되어 개표가 완료되고 오늘 당회장이 공포한다.

충현의 모든 성도께서 기도하며 투표한 장로 선출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 드림을 전하며, 피택된 이들을 만나 “축하한다.”고 인사했을 때 그들은 “부족한 사람에 대해가 무섭다.”고 겸손히 대답을 보였고,

“앞으로 교회를 위하여 순교를 각오한 헌신과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고 했다.

6년만에 선출된 장로 선거였기에 온 교회의 관심과 기대도 높았다. 예제 피택된 이들을 위하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교회에 복을 세우기 위한 우리 장로의 사명을 잘 감당토록 계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⑤... 흥분에 찬양에 이르

않는다면? 지난 주간 있었던 미국 보컬 “뉴 캐스엔드 블락” 공연장에 해외의 광적인 소란으로 인하여 70여명의 어린이들이 부상당했고, 1명은 뇌사가 되었다는 매스컴 보도가 있었다.

이 나라의 동량(棟樑)에 될 10대들의 무분별한 무방화놀음에 한국 청소년을 병들게 했고, 놀이 문화가 정화되지 못한 현실에서 우리 교회

는 청소년 교육에 대해 애상 눈을 떠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모르긴 해도 날 운집한 1만 5천명 청소년 가운데에는 크레 스칸도 있었을 텐데, 질투와 기독교 문화의 행동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광란의 도가니에 같이 휩쓸렸으니 안타깝게 그치지 않다.

전진한 기독교 문화를 형성하여 감수성에 예민한 청소년들을 교회 울타리에서 자제와 인내를 배우게 하자.

전도대원모집

- 표어: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눅14:23)
- 목적: 영혼 구원, 새로운 구역 개척으로 교회 배가 성장
- 전략: 훈련된 일꾼이 목적지에 들어가서 새로운 구역(영성공부 모델)을 만들고, 이 모임을 통하여 또 다른 구역이 생겨날 수 있도록 한다.
- 훈련내용: 전도의 동기 부여, 찬송 및 기도 훈련, 현장 전도 방법, 구역 신발 방법
- 훈련기간: 130주간(매주 수요일 저녁 8시 30분~10시 30분)
- 모집기간: 3월 1일(주일)~3월 21일(수)
- 개강예배: 3월 15일(수) 저녁 8시 30분 베다니홀
- 모집대상: 전도에 열정을 가진 성도
- 등록비: 만원
- 등록처: 사무국(교도2호)
- 문의: 사무국, 전도위원회 사무실(전도5호)



충현강단

신성종 목사

성자에게 합당한 생활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겉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엡 4:1~16)

에베소서에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하는 교리에 관한 부분이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윤리에 관한 부분입니다.

먼저 기억하고 지나가야 할 것은 교리만 아무리 잘 믿어도 소용이 없다는 점입니다. 성경 많이 알고 교리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생활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엡 4:1)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교회학교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교구일꾼으로 각각 부르셨습니다. 따라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인 우리들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1. 하나되는 삶

“모든 겉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엡 4:2,3)

성자 하나님께 합당한 생활은 성령의 줄로 하나되는 생활입니다.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다섯 가지 기본적 덕목이 따라야 합니다.

첫째 덕목은 겉손입니다.

감독 바다가 말한 대로 “겉손이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을 넣는 보석 상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아무리 많은 축복을 받더라도 그릇이 줄줄 새어버리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잘 간직하려면 그릇이 좋아야 합니다.

사람을 흔히 그릇에 비유합니다. 우리들은 큰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또한 그릇이 깨끗해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이 변질되지 않습니다. 겉손은 자기 자신을 땅에까지 내려가도록 낮추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가난하다는 말은 겸손을 뜻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부족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92년도에는 우리 모두 그릇이 큰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 덕목은 온유입니다.

온유의 대표적인 것은 물입니다. 물은 높은 곳으로 가지 않고 낮은 대로만 흘러갑니다.

온유라는 말은 맹수를 길들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맹수 같은 성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런 우리들의 성품들을 온유하게 길들이셨습니다.

셋째 덕목은 오래 참음입니다.

인내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 하나입니다. 오래 참아야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넷째 덕목은 사랑입니다.

다섯째 덕목은 평안입니다.

앞에서 말한 다섯 가지 덕목은 신자들이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데 필수적인 것입니다. 겉손이라는 그릇을 준비해서 그 속에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평안을 가득 담아두면 성자에게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2.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

4절부터 6절까지는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엡 4:4)

성자에게 합당한 생활 위해선

겸손 · 온유 · 인내 · 사랑 · 평안이 필요

4절에는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라는 보편적 교회(universal church)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습니다. 오른손과 왼손이 싸우기도 하고 손과 발이 싸우기도 합니다. 신경에 고장이 나면 팔이나 다리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성령받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한 소망”이란 부르심의 목적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들을 다 불러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이렇게 불러주신 목적은 하나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치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엡 4:5,6)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몸도, 성령도, 부르심의 소망도, 주도, 믿음도, 세례도, 하나님도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3. 하나되는 방법

7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되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느니라”(엡 4:7)

“선물”이란 은혜의 선물, 즉 은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분량대로 주셨습니다. 그 은혜의 선물을 잘 활용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엡 4:8)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엡 4:10)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서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늘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영국의 시인 엘리엇은 “황무지”라는 시를 통하여 현대인들을 “텅빈 자”들인 동시에 “가득찬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인간들의 마음에 사랑과 정의와 겸손

과 같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은 전혀 없고, 욕심과 시기와 질투와 같은 더러운 것들로 가득차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들의 마음에서 더럽고 추한 것들은 모두 없애고, 있어야 할 것들로 충만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들에게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로, 교사로, 그밖에 여러 직분을 주셨습니다(엡 4:11)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엡 4:12)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교회는 목사 하나만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정로나 권사나 집사나 권장들로만 되는 것도 아닙니다. 평신도와 어린이들도 있어야 합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도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는 필요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직분을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것은 하나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4. 하나되는 기준

13절에서 16절까지는 교회의 목표

하나되는 기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엡 4:13)

신체의 큰 부분이나 작은 부분이나, 그 어느 하나라도 없어서는 정상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는 크나 작으나 있어야 할 것은 다 있어야 합니다.

또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성장을 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꾀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엡 4:14, 15)

성경에 보면 “어린아이”가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가 아니라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말씀에서 어린아이는 좋은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밋듯 하나님을 밋고, 단순하게 부모의 말을 받아들이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때분 14절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는 쉽게 사람의 꾀술과 유혹에 빠지고 모든 교훈의 풍조에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말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합하고 상합(相合)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엡 4:16)

우리 모두가 연합하고 성장하여 온 몸이 바로 되어야 합니다. 신앙 생활을 해가는 데는 지, 정, 의가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 대한 지식과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하고 믿는 바를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적인 것을 강조하면 합리주의로 빠지기 쉽고, 정적인 것을 강조하면 신비주의로 빠지기 쉽고, 의지적인 것을 강조하면 윤리주의로 빠지기 쉽습니다.

교회는 말씀을 통해서 세워져야 합니다. 말씀을 먹어야 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사로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여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일에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여 복음들고 나아가자!

—전도대 참가를 권장하며—



김 해 규 목사
(전도위원회 지도)

일꾼이 부족하다. 훈련된 일꾼이 부족하다. 예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께서 70인을 파송하시면서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눅 10:2)

예수님 주위에 사람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자칭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한 사람들도 많았다. 그러나 그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다. 마땅히 일할 만한 사람들도 많았다. 그러나 그들의 관심은 흩어져 있었고 영혼 구원의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긴급한지를 알지 못했다(눅 9:57~62).

오늘날도 똑 같은 상황이다. 추수할 것은 점점 많아지고 있다. 교회 안에 사람도 가득 가득 차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일꾼은 심히 부족하다. 훈련되고 예수님의 마음에 합당한 일꾼이 부족하다.

누구든지 복음을 전파할 수 있고 또 해야 한다. 그러나 아무나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람의 말이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

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행 1:8)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 다만 우리는 이를 깊이 자각하고 더욱 충만히 받아서 나가면 된다.

92년도에는 할 일이 많다. 그래서 이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70인 전도대의 사역 방향을 약간 조정했다. 한 사람을 훈련시킨 다음, 전도할 대상과 목표 지점을 정한다. 그리고는 복음을 들고 들어가서 자기가 전도하고 양육하는 구역(성경공부 모임)을 개척한다. 이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권능 받고 전도의 문이 열리면 너무나 감격스런 일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훈련이 필요하다. 마음만 가지고는 안된다. 전도하고 양육하는 일에 전문가가 될 때까지 훈련이 필요하다. 복음을 전하고 싶으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염려할 필요가 없다. 누구든지 와서 훈련을 받으며 된다. 이 일에는 일꾼이

많을수록 좋다. 과거에 어떤 훈련이든지 받은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이 일에 더욱 적합하다. 그러나 경험이 없는 분들도 더욱 필요하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일도 긴급한 일도 많이 있다. 사업과 직장, 자녀 문제, 가정 문제, 자기 성취의 과제 등. 그러나 이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하셨다. 이 말은 사람의 팔을 비틀어서라도 기이코 데려와서 복음을 듣게 하라는 명령이다.

이처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심정과 일의 중대성, 그리고 날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안다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겠는가! 나의 생명을 걸고라도 복음을 전하겠다고 주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실 것이다.

총헌의 성도여, 이제는 모입니다. 기도 합시다. 훈련 받으십시오. 권능 받으십시오. 복음 들고 나아가십시오.

미화부 직원들은 모두 16명이다. 우리 교회 총 연건평이 11, 371평이라고 할 때, 이들이 감당해야 할 부분은 총 711평에 달하고, 한 사람의 힘으로 한 주일만 교회를 청소하려면 하루에 119평씩을 청소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말이 백여 평을 청소하는 것이지 이것은 웬만한 사람으로는 상상하기 힘든 넓이라고 본다. 그렇지만 미화부 직원들은 이런 것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온전히 세워 나가는 데 자신이 한 몫한다는 신념으로 열심히 봉사하고 있

그러나 이런 시도들이 성도들의 마비된 의식을 각성시키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우리들이 일 주일에 한, 두 번은 나와 예배 드리는 이 성전은 우리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세워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화부 직원들이 아닌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겐 성전을 깨끗이 할 당위성이 있다. 교회를 깨끗이 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나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집에서 교회 청결을 위하여 미화부 직원들을 만나 나눈 얘기들을 정리하여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행사나 집회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미화부 직원들을 찾아—

다. 그런데 이들은 분명 교회의 구석구석을 쓸고 닦는 데 열심인데도, 수요일이 지나고 토요일이나 주일 오후가 되면, 아니 수요일 전이라도 무슨 행사나 결혼식을 한 번 치른 뒤에는 쓰레기들이 여기저기 쌓여 있는 것을 쉽게 발견하게 된다. 그래서 미화부 직원들은 자신들이 아무리 열심히 쓸고 닦고 해도 성도들이 자기 집 돌보듯 하지 않는 상황에서 청소가 제대로 안되어 있다는 지적을 받게 되면 ‘벌 빠진 독에 물을 부었구나.’ 하는 허탈감마저 든다고 한다.

교회 청결은 미화부 직원들에게만 미를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그간 여러 행사들을 통하여 전도회별로 청소 구역을 배정하여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 바 있다.

시간에 나오는 쓰레기, 예를 들어 간식 껌테기나 남은 유인물들을 주관 부서에서 모아, 교육관 1층 화장실 뒤편에 위치한 쓰레기장으로 버리는 일이라든지, 탁자나 의자들을 제자리에 갖다 놓는 일을 주관 부서에서 책임지고 하자. 이를 위해 각 부서별로 미화부를 만들어 집회 후 사용장소 정리를 전담하는 것도 실천해볼 만한 일일 것이다. 결혼식을 갖는 가정에서는 광고 시간이나 식순지를 통해 하객들에게 교회 내에서의 금연을 확실하게 알려, 교회 뜰에서 담배 풍초가 발견되는 일이 없도록 하자. 이와 함께 주일에 본당에서 모임을 갖는 경우 저녁 찬양 예배를 위하여 간식을 먹고 난 후에는 반드시 뒷정리를 책임지고 하자.

장로칼럼

바람직한 장로상



장은원 장로
(제2교육위원장)

총헌교회 제26대 장로로 피택되었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축복이 아닐 수 없다. 선배된 장로서 집사님들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린다. 사도 바울은 강조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나 그의 종이 되는 것은 만세 전에 예정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다. 이 예정의 성취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이번엔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교회의 선택함으로 부름을 받게 되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로의 직분과 집사의 직분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 일을 하기 전에 피할 것이 있으니 물욕을 피하며 외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세움을 싸우라고 하였다.

그리고 영혼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철저히 인식하는 사명감에 불타는 장로가 되어 주기를 바란다.

초대 교회에서는 감독을 선거할 때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투표했고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했으며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한 자라야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되었음을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히브리서 5장 14절을 보면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지혜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교회의 장로가 실수하여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는 그 교회에 책임이 크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 덕망있는 신실한 장로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장로는 확실한 믿음과 말씀 안에서 이단종파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아무리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부하는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자인지 마귀의 영에 속한 자인지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점점 세속화 되어가는 교회를 바로 저킬 수 있는 사명이 우리 장로들에게 있기 때문이다.

장로로 부름을 받게 되는 것이 자기 자란이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요, 또한 교회에서 택해졌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니 장로 시무된 뒤에도 원치 않는 일을 하거나 교만하게 행하면 옛날 사울왕과 같은 무서운 말로가 올 것이라는 무서운 경고를 잊지 말아

야 한다. 그러므로 피택된 자는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히 자기의 부족한 것을 보충해가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앞으로 6, 7개월 동안 열심히 준비하여 수도노회에서 실시하는 고시에 합격하여 승인을 얻은 후에 영광스러운 장로직에 설 수 있기를 바란다. 만약 고시에 불합격하는 분들이 있을지라도 조금도 낙심하지 말고 아직 때가 되지 않아 하나님께서 허락을 연기하신 것으로 굳게 믿고 원망과 불평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하여 부족한 부분을 준비하면서 교회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일꾼으로, 자격있는 장로로 사용하시는 날이 속히 온다는 것을 확실히 믿기를 바란다.

장로는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성직이기에 세상적인 지위를 초월한 권위 있는 직분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부탁드린다. 권위 있는 장로는 똑똑하고 경우 바른 사람으로서, 싸우고 승사하기를 일삼는 것보다 차라리 바보스럽고 미련한 듯 불의를 당하고 속아서 살면서도 덕망있는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다. 이를 잊지 말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장로로서 교회의 신령적 유익을 도모하며 각 기관을 잘 감독할 수 있는 장로다운 장로가 되어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다.

다음호 칼럼은 최상규 장로님께 부탁드립니다.

통일의 기도

하나님의 역사로

세계는 변하고 있다

동구권 선교의 태풍 휘몰더니

소련, 중국 민주화 바람 불고

이스라엘 백성의 함성으로

여리고성 무너뜨림 같이

베를린 장벽 무너지는 기적

어렵게 이룬 동서독 통일

하나님 뜻 이루어

21세기 복음화 통일 되었네

복음화 거센 물결

방향을 돌려 강하게 일더니

이념 혁명, 21세기 맞아

아시아로 옮겨졌네

남북한 통일

눈앞에 닥쳐

알지 못할 그때 그 시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옵소서

40년 무성한 잡초 마르고

가시철망 휴전선 주님 자르리

당신의 초월한 능력과 설계

복음화 통일 멀지 않고

남북한 철천지만 온 겨레

참여와 슬기로 기도 준비 속에

하나님 명령에 복종하는

통일 기리는 성도의 기도여

삼천리 금수강산 밝은 내일

한 민족 한 피 이은 나라

21세기 하나님 앞세우는

복음화 통일 이루소서

김운섭 성도

(장년 2부)

천국은 과연 있는가? 이 질문은 한 때 영국에서 신문왕으로 유명했던 로이 톰슨이 노만 빈센트 필리 목사님에게 던졌던 질문이다.

로이 톰슨은 당시 보기 드물게 유능한 신문기자였으며, 영국, 캐나다,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많은 신문사들을 소유하고 운영하여, 신문왕국을 이루었던 기인이라 할 수 있었던 사람이다. 로이 톰슨은 신문사를 사고 파는 능력이 탁월하여 그에 대한 명성이 높았으며 그러한 그의 사업 능력은 당시 영어권에 속한 나라에서는 매우 흥미로운 화제의 대상이 되고 있었다.

로이 톰슨은 캐나다의 한 지방에서 목회를 하는 한 목사님의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물려줄 재산은 아무 것도 없었고 오직 확고한 길이 있는 신앙을 아들 톰슨에게 심어 주었다. 톰슨은 신문사업에 손을 대어서 점점 성공하여 나중에는 런던타임스, 런던센데타임스, 에딘버그의 스코트 등 유명한 신문들을 소유하여 운영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던 어느날 톰슨은 자기 신문사인 런던타임스 주최로 오찬 파티를 열게 되었는데, 그 오찬 파티에 노만 빈센트 필리 목사님을 연사로 초빙하게 되었다. 그 오찬석에는 유명한 신문사의 논설위원, 기자 및 굴지의 기업인들이 초청되었다. 그래서 오찬 테이블 주변에서는 영국, 미국의 정치를 비롯해서 국제적인 여러가지 관심사, 국제 평화의 전망 등 다양한 화제가 이야기되고 있었다.

이러한 와중에 갑자기 로이 톰슨이 일어나서 필리 목사님에게 질문을 던졌다. "목사님 괜찮으시다면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질문에 대하여 가부를 바로 답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늙었습니다. 가까운 날에 세상을 떠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톰슨이 이야기를 시작하니 장내는 갑자기 무거운 침묵이 흐르게 되었다. 톰슨은 계속 질문하기를 "목사님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천국이 과연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그것을 믿고 계십니까? 만약 목사님께서 믿으신다면 어떻게 되어서인지 말씀해주시옵시오. 진정으로 천국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톰슨이 질문하였다.

톰슨의 이러한 질문으로 인하여 오찬석의 화기에 애한 분위기는 갑자기 숙연한 분위기로 변해 버렸다.

필리 목사님은 로이 톰슨이 일부러 자기를 당혹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는 줄 알았으나 잠시 어리둥절 하였다. 그러나 로이 톰슨의 질문은 매우 진지하였고, 다른 여러 사람들도 아주 주의 깊게 듣고 싶어하는 분위기였다. 그래서 필리 목사님은 대답에 나섰다. "저는 훌륭한 학자는 못됩니다. 다만 목사일 뿐입니다. 나는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고 사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쓰여진 약속을 믿으며 예수님 안에서의 구원의 역사를 믿으며 영혼 불멸과 죽어도 다시 사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지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이 모든 것의 뚜렷한 증거이십니다."라고 대답하고 보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의미가 깊은 다음과 같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였다. 그것은 아직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있는, 모태에 있는 아기에 대한 비유였다. 다시 말하면 어머니의 자궁 안에서의 사랑의 마음 속에 있는 아기에 대한 비유라 할 수 있었다.

필리 목사님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여기에 모태에 있는 한 아기가 있다고 봅시다. 어느날 한 사람이 찾아와서 '애야 너는 이곳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 수 없게 된다. 몇 달 있으면 너는 이곳에서 사라지게 되고,

다시 태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 아이는 이 말을 듣고 매우 완강하게 항의할 것입니다. 여기서 떠나기가 싫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서 잘 보살핌을 받고 있고 또 편안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으므로 다시 태어난다거나 이곳에서 사라지는 것은 아주 싫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몇 달이 지나서 태어났으며 모태에서는 사라

천국에 대한 어느 목사님의 비유

송남석 성도 (제2교구) 제공

졌습니다. 그가 태어날 때 무엇을 느꼈을까요. 사랑스럽고 따뜻한 손이, 강하고 힘있는 손이 밑에서 받치고 있는 것을 느꼈을 것이며, 사랑으로 가득차 있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어머니의 얼굴을 쳐다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여러 사람들이 기쁨과 축복의 마음으로 이 아기를 찾아 보게 될 것이고 또한 이 아기를 귀여워하고 부둥켜안고 잘 보살펴 주었을 것입니다. 이때 이 아이는 '이렇게 좋은 곳이 있는 것을 몰랐었구나.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나.' 하고 깨닫고 대단히 즐거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점점 자라서 나중에는 사랑스러운 여인과 결혼하고 아내와 자녀들과 살아가는 동안에 어느덧 머리로 회이고 발걸음도 느려지고, 기운도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어느날 한 사람이 찾아와서 이 사람에게 말하기를, '그대여 그대는 여기에 오래 머물러 있을 수 없게 될 것이요. 이곳으로부터 사라져서 다른 곳으로 가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고 이야기해주면 이 사람은 '아니오. 안될 말씀입니다. 죽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이곳이 참으로 마음에 들어서 좋아요. 좋은 친구들도 있고, 이곳이 매우 즐거운 곳이에요. 아침에 동이 틀 때와 저녁에 노을이 질 때, 저녁의 밝은 달과 하늘에 무수히 빛나는 별들이 정말 아름답고 이곳이 지내기에 좋아요. 겨울이면 따뜻한 해주는 화로불과 겨울의 하얀 눈을 밟고 지날 때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이 아름다움을 잊을 수가 없어요. 진실로 여기가 좋아요.' 하면서 완강하게 떠나기를 거절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서 이 사람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사람을 다시 한번 힘있는 손이 사랑스럽고 따뜻한 손이 밑에서 받쳐주고 있음을 느낄 것이고, 오래 전에 처음 보았던 부드럽고 따뜻한 그 사랑스러운 얼굴보다 더욱더 정에 넘치고 사랑이 가득한 얼굴을 쳐다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이 사람은 참으로 즐거운 환성을 터트릴 것입니다. '이 놀랍고 아름다운 세상을 꼭 붙들고 살겠노라. 여기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하고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필리 목사님은 이야기를 마치시고 "여러들의 이해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오찬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이 깊이 감동을 받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눈물에 젖은 얼굴을 수건으로 닦고 있었다. 이때 톰슨은 진실로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말하고 항상 마음속에 그늘져 있던 것이 말끔히 씻어졌다고 하면서 이 비유를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톰슨은 필리 목사님에게 아주 흐뭇해 하면서 "목사님 제가 그곳을 좋아하게 될까요?" 하고 여유 있는 질문을 하니 필리 목사님은 "그렇구 말구요. 물론이죠. 톰슨씨는 너무 좋아하실 겁니다."라고 응수하였다. 톰슨은 또 다시 "목사님 그러면 저는 거기서 무엇을 하게 될까요?" 라고 물으니 필리 목사님은 "톰슨씨 당신이 잘 아는 바와 같이 그곳에서 톰슨씨는 아마 신문사를 사고 팔게 되겠지요."라고 다시 응수하였다. 이때 오찬석에서는 일제히 폭소가 터져 나왔다.

오찬을 끝내고 나오면서 로이 톰슨은 필리 목사님의 어깨를 끼 안으며 "목사님 저는 항상 목사님을 적극적인 생각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요, 또 한편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목사님을 항상 좋아 합니다."라며 고마움을 표시하였다.

그후 로이 톰슨은 이 세상을 떠났고, 그의 확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품 속에서 즐거운 삶을 보내고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필리 목사님은 이야기하고 있다.

감사의 예물

제12교구 백정현 집사가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유용하게 사용해 달라며 대형 공기 정화기 2대를 기증해왔다.

교회와 이를 유치원과 장애아동조기교육원에 설치함에 따라 어린이들이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되었다.